

핵심주제

- 갈루시카 장관, 제4회 동방경제포럼으로 북한 사절단 초청
- 2018동방경제포럼 자원봉사자 선별 개시
-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에서 사업하세요' 브랜드 런칭



동방경제포럼 뉴스

2018년 3월 29일, Regnum

제 4회 동방경제포럼 자원봉사자 선별 개시

동방경제포럼 자원봉사자 신청 접수 기간 초반에 400명 가까이 신청하였으며 주로 극동 연방대학교 학생들이 지원하였다. 동방경제포럼에서 활동할 자원봉사자들은 연해주를 포함한 기타 극동지역 신청자들 중 선별될 예정이다.

<https://regnum.ru/news/2397808.html>

2018년 3월 23일, TASS

베트남 사업가들 동방경제포럼 방문 예정

고위급 베트남 방문단이 2018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팜빈민 베트남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을 마친 후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양국이 교역확대를 포함하여 상호투자 확대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http://tass.ru/ekonomika/5058407>

2018년 3월 21일, TASS

갈루시카 장관, 제4회 동방경제포럼으로 북한 사절단 초청

러시아와 북한은 교역확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협력분야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3월 21일 방북중에 밝혔다.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동방경제포럼에서 북한측에 북한의 관광 및 경제 잠재력에 대한 발표를 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http://tass.ru/ekonomika/5053275>

2018년 3월 20일, RIA NEWS

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헥타르' 공모전 수상작 투자자들에게 발표

극동 인적자원 개발청이 올해 3월 20일 '극동 헥타르' 아이디어 및 프로젝트 공모전의 시작을 공지하였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토지를 개발하는 최고의 솔루션을 제안한 지원자들 위한 공모전 총 5개 분야에서 각각 10만 루블 상금이 걸려있으며 수상작들은 제 4회 동방경제포럼에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https://ria.ru/society/20180320/1516839369.html>

극동 국가정책

2018년 3월 16일, Vesti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하바롭스크 공항 건설 착공 지시

하바롭스크 노비 공항 발전 프로젝트는 활주로 재건축, 터미널 인프라 구축 및 AirCity 상업구 개발을 포함한다. 26000 제곱미터 규모의 국내선 신공항터미널 건설에 투자될 금액은 50억 루블 가량이다.

신규 터미널은 공항 승객 처리능력을 확대할 전망이다. 예측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하바롭스크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가 2배 가량인 연간 4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다. 공항 터미널은 2019년 말경 완공될 예정이다.

<https://www.vesti.ru/doc.html?id=2996123&cid=17>

2018년 3월 12일, 'Rossiskaya Gazeta'

콜리마에 첫 선도개발구역 조성

2018년 마가단주의 첫 선도개발구역이 조성될 예정이다.

주로 관광업 분야의 5개 구역으로 구성될 전망이며 '탈라야' 휴양지 및 낚시와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극동에는 18개의 선도개발구역들이 조성되어 있다.

<https://rg.ru/2018/03/12/reg-dfo/na-koly-me-poiavitsia-pervaia-tor.html>

2018년 3월 5일, 'Rossiskaya Gazeta'

연해주, 외국인 관광객 수로 러시아 2위 지역으로 등극

연해주가 러시아 지역들 중 외국인 관광객수로 순위권에 접어들었다 (1위는 크라스노다르주, 3위는 크림반도). 2017년 연해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64만명 이상이다. 연해주 방문 외국인 중 중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작년에 일본, 한국 관광객수의 상당한 증가가 관측되었다.

관광객 수의 증가는 연해주의 활발한 홍보, 크루즈 관광의 발전 및 18개국 국민들이 전자비자로 연해주를 방문할 수 있게 하는 비자 간소화 절차의 결과로 분석된다.

<https://rg.ru/2018/03/05/reg-dfo/primore-stalo-vtorym-regionom-rf-po-chislu-inostrannyh-turistov.html>

극동 경제

2018년 3월 5일, Komsomolskaya Pravda

한국 사업계, 연해주에 15억 달러 투자 의향

한국 75개 기업 관계자들을 포함한 300명이 올해 3월 5일 루스키섬에서 트루트네프 부총리 주관하에 진행된 한국 투자자의 날 행사에 참여하였다. 행사에서 조선업, 에너지, 의료, 석유가스화학 및 어시장 조성 등과 관련된 투자프로젝트 추진 전망이 논의되었다. 트루트네프 전권대표는 현재 러시아 내 외국인 직접투자 중 26%는 극동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https://www.dv.kp.ru/daily/26802/3837791>

2018년 3월 6일, Eastrussia

러시아 극동개발부, '극동에서 사업하세요' 브랜드 런칭

갈루시카 장관에 의하면 극동 투자 조건을 글로벌 홍보하는데 있어 단일 브랜드로 추진하여 투자자들과의 업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장관은 해외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를 위해 '외국 투자자의 날' 행사를 계속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올해 극동 최초로 인도, 유럽 투자자의 날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다.

또한 외국 투자자들과의 업무를 위해 극동투자유치청이 대외협력망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북경 사무소 외에 하얼빈, 상하이, 서울, 도쿄, 뭄바이, 브뤼셀 사무소가 설립될 예정이다.

<https://www.eastrussia.ru/news/minvostokrazvitiya-zapuskaet-brend-delay-biznes-na-dalnem-vostoke>

극동발전 신규정책: 성공사례

2018년 3월 29일, Interfax

하루 100톤 생산력을 보유한 수산물 가공공장 연해주에 설립 예정

'노비 미르' 조업협동조합은 '볼쇼이 카멘' 선도개발구역에 명태 등 어류를 가공하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산물 환적 물류지점 조성도 계획되어 있다. 현재 투자자의 신청을 극동개발사에서 검토중에 있다.

<http://www.interfax-russia.ru/FarEast/news.asp?id=921100&sec=1679>

참고정보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및 전시회 행사 조직 분야 최대 회사이다.

'RosCongress' 재단은 컨벤션, 전시회 및 공공행사 조직을 통한 러시아의 경제 잠재력 및 이미지 강화 기여를 목적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재단은 행사 콘텐츠를 제작하고 기관 및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정보, 자문 지원을 제공하며 총체적인 러시아 및 글로벌 경제 연구, 분석을 진행한다. 재단은 행정지원을 제공하고 민관협력을 포함한 사업 프로젝트 프로모션 및 투자유치 지원도 제공한다.

오늘 재단이 매년 진행하는 행사들은 몬테비데오부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개최지가 다양하며 이를 통해 한 자리에 세계 사업계의 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부관계자들을 모을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들을 논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며 공익사업과 자선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www.roscongress.org